

2022년 12월 11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 가정예배순서 ♥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116편 19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 찬 송 / 265(통199)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 성경봉독 / 욥기 13장 1~19절(구약p.773)

1.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2.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3.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4.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 없는 의원이니라
5.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6.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 보라
7.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8.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9.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 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10.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11.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12.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13.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14.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15.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16.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17.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 줄 것이 있느니라
18.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19.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라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 ◎ 말씀선포 / 하나님과 변론해야 할 죄인

어리석은 자들의 불완전한 지식에서 나오는 변론은 답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혼돈에 빠지게 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변론을 원하는 욕에게서 우리는 참된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씀하는 욕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 1. 전능자 하나님과의 변론을 원했습니다.

- 본문 3절입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변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호케아흐”로서 이 뜻은 “판결하다, 증명하다, 책망하다, 변론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욕은 친구들이 아닌 하나님께 가서 법정 논쟁을 통해 간절히 자신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무고함을 판결받고, 자신을 증명하며 혹 책망을 받더라도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어 해결함을 받고 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욕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욕은 자신이 당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 자신들의 소견대로 비판하며 변론한 친구들에게 매우 실망합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라고 말하며, 욕은 그들이 말한 것을 자기도 알고 있고, 그들보다 못하지 않다고 진솔함으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욕의 친구들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되는 양 욕을 정죄하고 훈계했습니다. 욕의 눈에는 그들의 행위가 가증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욕은 그들에게 거짓말을 지어 내는 자요 쓸모없는 의원이라고 하면서 차라리 잠잠한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4~5절입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 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때문에 욕은 이제 그들과 같이 불완전하고 어리석은 자들과 변론하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므로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고 심판을 당해야 한다면 차라리 감수하겠다는 결단입니다.

- 사람은 남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문제를 알지도 못하니 당연히 해답도 알 수 없고, 자기 소견대로 주장만 하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고난에 처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기는커녕 상처만 주고 절망감만 느끼게 만듭니다. 나는 좋은 의도로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듣는 자들의 상황과 형편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24절에서 사도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석은 논쟁을 삼가고,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더욱 겸손함으로 기도하면서 문제를 바로 알고 바른 해답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 하나님도,

### 2. 죄인과 변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 욕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했던 것은 완전한 하나님만이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은 타인을 완전하게 용서할 수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불완전함을 감추려고 타인의 약점을 더 강하게 지적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완전한 용서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당신 앞에 나아와 자신의 죄에 대해 변론하고 용서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빠진 백성을 향해 이사야 1장 18절에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은 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고 말씀하셨고, 이사야 43장 26절에서도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솔한 변론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덧입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인 된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아버지 하나님은

### 3. 죄인의 중보적 변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 하나님이 죄인과 변론하시고 그 죄를 깨끗하게 사하시며 온전한 의인으로 선언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

역사에서, 그 중보적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옳이 사람과 변론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변론하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께 완전한 해결책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죄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한 인생의 모든 일들이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그 누구도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연약합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이며, 저마다의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수고의 짐을 지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생의 끝은 사망이요, 육체의 사망뿐 아니라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참으로 인생이란 해결 받지 못하는 죄라는 불치병을 가지고 사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의 고통과 수고의 짐을 지고 죄의 불치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치유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불치병을 고치시는 기적의 의사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병인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성도의 참된 치료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수고의 짐을 대신 지시고 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더욱 나를 나보다 잘 아시고 위로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과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주장하려고 변론하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변론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과 복을 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긍휼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 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과 가정,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 ◎ 찬 송 / 292(통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 ◎ 폐 회 / 주기도문